

“유전자 데이터 연구로 각종 질병 예방 기여 할 것”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대상에 1516의 ‘화_(火花)’ 창작지원금 1000만원...은상은 이호의 ‘고래의 말’



(10) 전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 선발 김종찬 씨

바이오 데이터 과학자 돼 돌아와 보답 서울대 입학 뒤 어려운 청소년 꾸준히 도와 어려움 닦쳐도 희망 갖고 목표 이루려 최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바이오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권위자가 돼 돌아오겠습니다.”

전라남도 제1기 도비 유학생이 된 김종찬(24·여수)씨는 서울대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데이터공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조만간 출국길에 오른다. 낯선 분야지만 대학에서 다양한 동물 실험에 참여하고, 유전자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방법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자신이 있다.

“유명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절

제술을 받았는데요. 유전학적으로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유전 정보나 환경요인, 과거 질환 등을 빠르고 쉽게 분석해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비하는 방안을 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강씨는 서울대에 입학한 뒤 교육봉사단체 ‘서로울림’을 꾸려 6번째 회장을 맡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저소득층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1대1로 연결시켜 학업을 돕고 있다.

“전남도와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우 기쁘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배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찾아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는 자신만의 ‘루틴’ (Routine)을 개발하기를 권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세상에 흠어져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다.

“저는 희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걸릴 확률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 인력이 향후 5년 내에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이 분야의 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씨는 전남도가 도비 유학생을 선발해 과학 분야의 인재 육성에 나선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 출신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재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학이 결코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도비유학생으로서 목표를 이루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10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에서 1516의 ‘화_(火花)’가 대상을 수상했다.〈사진〉 대상의 영예를 안은 1516의 ‘화_(火花)’는 불꽃처럼 환하고 뜨겁게 살다 가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곡으로, 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불꽃처럼 스러져 간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았다. 1516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금상은 다시 다가올 또 다른 봄날의 희망을 담은 강주의 ‘봄 너로구나’가 수상했다. 은상은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호의 ‘고래의 말’, 동상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비판한 이형주의 ‘무궁화 기차’가 받았다. 뮤즈그레인, 뷰즈(BUSE), 쓰다선, 예빈&유영, 죄, 우수다, 하비오 등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본선 경연에서는 지난날 1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총 188곡의 창작곡 중 1, 2차 예선을 거쳐 총 10개의 팀이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올해 본선 경연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오월창작가요제’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본선에서 입상한 10곡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실황음반으로 발매되며, 공연 영상은 공식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82-051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윤여철 전 주이집트 특명전권대사 참여자치21 새 사무처장에 기우식 정책위원장 임명

외교관 경험과 전문성 갖춰

광주시는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윤여철 전 주이집트 특명전권대사를 10일 임용했다고 밝혔다.

윤 국제관계대사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 18회에 합격해 1985년 1월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외교통상부 의견담당관, 북미2과장, 주국제연합대표부 참사관, 국제연합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연합 사무국 의전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주이집트 특명전권대



사등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자체와 민간 국제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윤 신임 국제관계대사가 광주시의 외교 역량을 향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적극적 대안으로 시정감시 할 것”

“광주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시정 감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행정감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참여자치21 신임 사무처장에 기우식(50·사진) 현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기 사무처장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 마을플랫폼 새울터기 대표,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사회교리 실천 모임 대표 등 노동과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 사무처장은 “시정감시활동이 나 지역의 의제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꿔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역량을 끌어내, 광주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정감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한 핑크박스 제작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 직원봉사단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60명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핑크박스 제작’ 봉사활동을 했다.

〈전력거래소 제공〉

TV프로그램 11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램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야생여정 플러스	00 그들이 그놈이다(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닐우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퀴즈 위의 아이들(재)	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찬파 스페셜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야생여정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③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왕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깊이 심사(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KBS 특별생방송 수해 극복, 우리 함께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⑧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정답뉴스 퀴즈쇼 오늘 배송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들이 그놈이다	30 공부가 머니?	
⑩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50 PD수첩	2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5 십시일반(재)	
⑫	10 광복절 특선 KBS결작 다큐멘터리(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이 맛에 산다(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오세도(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30 EBS 마스터	19:00 형사 가재트
07:30 뽀뽀뽀 뽀뽀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7:45 로보카 폴리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8:45 자이언트 팽TV
08:00 당동명 유치원	14:40 레이디버그	20:00 극한직업 스페셜
08:30 코코몽2	15:00 해오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50 뽀로로와 노래해오	〈월드랜드 아시아
09:00 픽시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전설 따라 마을 따라, 중국〉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30 페파 피그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오색 냥골 기행 2부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40 당동명 유치원(재)	한여름 동굴 속으로〉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아동명명 귀여워2	22:45 건축탐구 - 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빈 후드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45 히어로 씨클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1일(음6월 22일 丙戌)

<p>36년생 평상시에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48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60년생 과욕의 크기만큼 잃을 수밖에 없다. 72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84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96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행운의 숫자 : 06, 98</p>	<p>42년생 결과가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54년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78년생 조금만 자제 한다면 불평함이 사라질 것이다. 90년생 일을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02년생 가만하면 어떤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어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1, 69</p>
<p>37년생 다른 것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리라. 49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61년생 파종은 힘들더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73년생 기본에 충실하다보면 목적 했던 바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다. 85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나. 97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어가 용처가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27, 82</p>	<p>31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43년생 이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다. 55년생 애매하다면 흉년 흉벽은 확실하기라. 67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79년생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 91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6, 52</p>
<p>38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수도 있다. 50년생 건설한 발상 속에서 복이 피어나는 법이다. 62년생 확실히 추진하고 불 일이다. 74년생 백 마디의 말 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실효력을 얻는다. 86년생 구우일모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98년생 당연히 잘되어지리라 믿었던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행운의 숫자 : 98, 57</p>	<p>32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다. 44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56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68년생 여러 번의 기회들이 지나갈 것이니 잘 살펴봐야겠다. 80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92년생 정제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85</p>
<p>39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이란다. 51년생 진원지는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63년생 다소 잡음이 들리겠으나 대변하면 그만이다. 75년생 발전의 기운이 움츠러드는 형상이란다. 87년생 최선을 다 하면서 절실히 갈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99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 어서 올 수이니 반길만중이란다. 행운의 숫자 : 19, 81</p>	<p>33년생 맹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나 지나친 경계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 45년생 장수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57년생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다. 69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립들로 작용한다. 81년생 진행 방향은 바르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93년생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75</p>
<p>40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52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자. 64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76년생 심기가 불편하리라. 88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실히 하라. 00년생 언급과 정도를 조절하자. 행운의 숫자 : 38, 65</p>	<p>34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슬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6년생 구태여 낭비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58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70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82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94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행운의 숫자 : 48, 86</p>
<p>41년생 제어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65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 될 것이나. 77년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89년생 깔끔하게 하라. 01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72</p>	<p>35년생 금전에 집착하다보면 더 큰 의미를 잃게 됨을 감안하라. 47년생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낫다. 59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83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95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44, 83</p>